

Metaverse(메타버스(가상 공간))

16 개의 깃털이 달린 이 극락조상은 사실과 허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라이언 갠더는 첨부된 글귀를 통해 실존했던 인물인 모리스 에저튼(4 대 에저튼 남작, 1874-1958)이 등장하는 허구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열정적인 탐험가인 에저튼이 뉴기니 원정에서 돌아와 희귀한 낙원의 새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에저튼은 발견한 사실을 영국 여왕에게 소개하며 신문사는 그의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에저튼 남작에 관한 픽션을 통해 갠더는 사실과 허구 사이의 종종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계선을 생각하며, 은연중에 항상 완벽하게 진실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